

‘연비 뺑뺑이’ 현대·쌍용차, 소비자 보상 나서나

지난달 수입차 1만8112대 팔렸다

산타페·코란도 부적합 판정

“기준 다르다” 반발 속 내부 검토

집단소송 1인당 150만원 청구

국도교통부의 연비 검증 결과에 반발해온 현대차와 쌍용차가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상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작사는 산업부 조사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연비 부적합’으로 결론 내린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국토부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 말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과장 사실 공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의 산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 7는 6월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7월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르고,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한 것이다. 처음에 반발하던 해당 업체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말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가 나오면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은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가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사후 검증까지 자동차 관련 최대 규제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무조건 버티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리콜 권한은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연비 인증은 환경보호청(EPA)으로 권한이 이원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리콜과 사후 연비 인증 모두 국토부가 관장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업체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장기적으로 실익이 없을 발’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모 자동차업체의 디젤 신차 연비를 문제 삼아 신차 출시 시기가 늦춰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토부의 보상안 마련 요구에 대해 현대차 측은 “국토부가 실시한 두 차례 연비 시험 결과도 각각 다르고, 산업부 조사 결과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고 해도 기준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소비자 보상 방안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최근 밤미 기간에 ‘앞으로 10년 내 소비자 최고 선호 브랜드로의 도약’ 등을 과제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쇄신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산타페 구매자 등을 포함한 1700여명은 지난달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 접수 당시 1인당 청구금액은 150만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과장 연비 공개를 놓고 제작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별도로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면서 “국토부가 디젤 신차 연비를 문제 삼은 적도 없다”면서 “신차 출시 전에 연비 등의 제원을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자기인증제’이므로 국토부가 관여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월간 최고기록 또 갈아치워

BMW·벤츠·폴크스바겐 順

수입차업체가 지난달 1만8000여대를 판매해 두 달 연속으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월간 기준)을 경신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7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1만8112대로 지난해 같은 달(1만4953대)보다 21.1%, 6월과 비교하면 1.7%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1~7월 누적 판매량은 11만2375대를 기록, 10만대를 돌파하는 동시에 지난해 동기(8만9440대)보다 25.6% 늘었다.

윤대성 KAIDA 전무는 “일부 브랜드가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고, 휴가철을 맞이해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펼쳐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7월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BMW 3363대, 메르세데스-벤츠 3349대, 폴크스바겐 3157대, 아우디 2860대로 독일 ‘빅4’가 나란히 1~4위를 차지했다. 모델별로는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이 906대로 가장 많이 판매됐고 아우디 A6 2.0 TDI(681대)가 2위에 올랐다.

BMW 520d(550대)는 3위로 밀려났다. 이어 포드(917대), 도요타(567대), 렉서스(506대), 미니(495대), 랜드로버(408대), 크라이슬러(379대)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나머지는 혼다 320대, 푸조 315대, 닛산 309대, 포르세 305대, 볼보 276대, 인피니티 260대, 재규어 157대, 피아트 80대, 시트로엥 41대, 캐딜락 39대, 벤츨리 12대, 플스모이스 7대 순으로 나타났다.

배기량별로는 2000cc 미만인 9968대로 55.0%를 점유했다. 2000~3000cc 미만은 6137대(33.9%), 3000~4000cc 미만 1571대(8.7%), 4000cc 이상은 421대(2.3%)다.

국가별로는 독일차 점유율이 71.9%(1만3025대)로 70%대에 진입했다. 이어 일본 10.8%(1962대), 그밖의 유럽 9.9%(1790대), 미국 7.4%(1335대) 순이다. 연료별로는 디젤차가 1만2209대 팔려 67.4%를 차지했다. 지난해 7월 판매가 전무했던 전기차도 15대 판매됐다.

/연합뉴스



올 뉴 쏘렌토 전측면



올 뉴 쏘렌토 후측면



“LF쏘나타, 중형세단 중 최고 멋쟁이”

다음 카테스트, 디자인·실용성 1위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국내에서 판매중인 중형세단 7종을 대상으로 카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LF쏘나타(사진)가 종합 1위에 올랐다고 최근 밝혔다.

다음 카테스트는 다음 자동차와 전문 심사위원단이 실제 차량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회 카테스트에서는 SUV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열린 제2회 다음 카테스트는 현대자동차 ‘LF쏘나타’와 기아자동차 ‘K5’, 르노삼성자동차 ‘SM5’, 쉐보레 ‘말리부’, 토요타 ‘캠리’, 닛산 ‘알티마’, 혼다자동차 ‘어코드’까지 총 7대의 세단을 분석했다.

7대 모두 같은 조건에서 주행성능, 경제성, 디자인, 실용성 등 네 가지 평가 요소에 대한 17개 항목을 테스트했다. LF쏘나타는 디자인과 실용성에서 각각 1위에 올라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주행 부문은 알티마, 경제성 부문은 K5가 각각 1위로 뽑혔다.

모바일과 PC의 다음 카테스트 페이지에 들어가면 차량 모델별 테스트 항목별 결과 분석은 물론 현장 사진과 동영상, 각 평가 요소에 따른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올 뉴 쏘렌토’ 디자인 첫 공개

기아자동차가 이달 28일 출시 예정인 쏘렌토 후속 모델의 차명을 ‘올 뉴(All New) 쏘렌토’로 확정하고, 12일부터 전국 기아차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전계약 시작과 함께 기아차는 ‘올 뉴 쏘렌토’의 외관 디자인을 세계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올 뉴 쏘렌토’는 시원하고 강렬한 이미지의 전면부와 풍부한 볼륨감과 역동적인 선을 자랑하는 측면부, 안정감과 당당함이 공존하는 후면부 등 혁신적인 외관 이미지를 갖췄다.

‘쏘렌토’는 2002년 2월 1세대 ‘쏘렌토’로 처음 출시된 뒤 올해 6월까지 전세계 시장에서 총 207만여 대가 판매된 기아차의 대표 SUV다. 이번에 공개된 ‘올 뉴 쏘렌토’는 2009년 4월 출시된 2세대 ‘쏘렌토R’ 이후 기아차가 5년4개월 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 3세대 모델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아차 K7·그랜드카니발 일부 리콜

기아자동차가 K7과 그랜드카니발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에 들어간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아자동차의 K7과 그랜드카니발 일부 차량에서 앞유리가 파손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앞유리 열선 단자부의 결로 현상 등에 따른 수분 유입으로 열선부에 문제가 발생해 유리가 파손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들 차량 중 앞유리가 파손된 경우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기아자동차는 이를 수용해 차량 점검과 앞유리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K7의 경우 2009년 11월18일부터 2013년 3월17일까지 생산한 9만 7606대다. 그랜드카니발은 2005년 6월10일부터 2013년 9월19일까지 생산한 13만 7841대가 해당한다.

이들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는 기아자동차의 직영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받으면 된다. 문의(080-200-200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5P - 13층

- 실坪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 매매가 - 3천5백만원

29P - 사무실 적합

- 실坪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수기동 오피스빌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 실坪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1천만원에 월10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천만원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